

전라북도 컨벤션 및 주요 전시·행사 안내

2020 설맞이 특산품 박람회



- 기간 : 2020.01.09~01.23
- 장소 : 군산 GSCO
- 주최 : 비전코리아

제 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기간 : 2020.09.14~09. 21
- 장소 : 군산 GSCO
- 주최 : 전라북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 11회 소규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기간 : 2019.12.16(목)
- 장소 : 전주 로니호텔 그랜드블룸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 기간 : 2020.05.20~05.24
- 장소 : 군산 GSCO
- 주최 :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개발청

제 57회 전국도서관대회 (KLA Convention 2020)



- 기간 : 2020.10.14 ~10.16
- 장소 : 군산 GSCO
- 주최 : 한국도서관협회

공룡 곤충 파충류 생태체험전



- 기간 : 2019.12.13~2020.03.01
- 장소 : 군산 GSCO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KSAE Baja/ Formula/ EV)



- 기간 : 2020.08.14~08.16
- 장소 : 군산 GSCO
- 주최 : 한국자동차공학회

2020 전북창업 & 프랜차이즈 박람회 (JFEX2020)



- 기간 : 2020.10.16~10.18
- 장소 : 군산 GSCO
- 주최 : 좋은공간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소식

국내 최초의 국제 쌀포럼 '2019 김제 지평선 국제 쌀포럼' 성료

국내 최초로 진행된 '2019 김제 지평선 국제 쌀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김제시가 주관한 쌀포럼은 9월 30일(월)부터 10월 2일(수)까지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와 (사)전북마이스 발전협의회, (사)한국작물학회가 주관해 '쌀의 진화, 미래와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훤나스 반다리(Humnath Bandari) 박사의 '글로벌 쌀 생산, 소비 그리고 무역 동향과 미래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롱스위(Han long zhi) 중국농업과학원 소장과 다티 폴 코피(Dartey Paul Kofi) 아프리카 CSIR협회(농작물연구소) 박사, 서한석 미국 아칸소(Arkansas) 대학 교수 등 해외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각국의 쌀 생산시장과 유통경로 및 방법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또 고희중 서울대학교 박사과 오명규 농촌진흥청 과장, 조가옥 전북대학교 교수, 박평식 한국연구재단 박사, 김훈 한국식품연구원 박사 등 국내 쌀 전문가 등이 쌀산업 정책발표를 통해 선진국의 쌀산업 동향과 쌀 관련 식품유통, 직물육종, 김제시 쌀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평선 국제 쌀포럼을 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MICE 전문가들 한자리에, 전북 MICE 유치설명회 및 팸투어 진행



전북도가 지역 마이스 산업 인프라 홍보와 중소기업 회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10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국의 마이스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회의 전문업체와 전시기획자, 마이스 관련 학회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전라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도내 주요 관광지 및 회의시설 점검과 홍보가 목적이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전북 마이스 현황과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또한 마이스 대상지 투어와 골목골목 이야기 투어, 전북관광브랜드 공연 '흥도 1589'를 관람하기도 했다.

11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서학마을컨벤션, 전주한옥마을 남천교 도보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향교 및 전주전통문화연수원, 팔복예술공장 체험활동이 진행되었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북 마이스 인프라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숙 서양화가 제12회 개인전 ‘시간 속으로’ 10월 10일 전주추모관 문화공간서 오픈, 김흥수 화백 작품도 초대



전북 출신의 중견 서양화가 박경숙 작가가 ‘기억 속의 조각들-시간 속으로’라는 주제로 제12회 개인전을 열었다. 특히, 이 전시회에는 박 작가와 고(故) 김흥수 화백의 장남이 소장하고 있는 김 화백의 수준 높은 판화작품 몇 점도 함께 초대돼 전시되었다. 전시회 오픈행사는 10월 10일 저녁 6시 30분 전주추모관 신관에 자리한 문화공간(지하 1층)에서 열렸다.

박경숙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은 하모니즘의 창시자 고 김흥수 화백의 숨결과 함께 오랫동안 품어온 여성의 갈망을 담았다”며 “귀한 분들과 함께 예술향기 가득한 전주추모관 신관 문화공간에서 내내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출품된 작품들에 대해 “제시하는 화면은 백색 충동을 통해 자연과 호흡하고자 했다”면서 “그려진 대상을 굳이 찾자 한다면 자연에서 추출된 파편들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출품된 화면에는 제멋대로 치댄 나무, 화면에 박혔다 튕겨나간 모난 돌의 흔적들, 대기에 휩싸인 풀숲, 뒤란 나뭇가지 등이 자신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지 않고 그려진 여백 뒤로 신체를 숨기고 있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모르는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화폭이 시선을 끌어당긴다.

박 작가는 “화면에는 백색(白色) 질서가 존재하고 무질서가 지배하고 있다”면서 “백색으로 덮인 은밀한 화면 구성이 대상을 숨겨 놓은 듯, 비구상적인 매력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허성건 더메이아트홀 대표, 전주 팔복동 ‘더메이호텔’ 건립 중



더메이아트홀의 허성건 대표가 전주 팔복동에 소재한 삼양사 맞은 편에 ‘더메이호텔’을 건립 중에 있다. 건물 바닥 면적은 1,470평으로 750명이 식사하면서 동시에 회의가 가능한 컨벤션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420명 식사 및 회의가 동시 가능한 컨벤션 공간도 건립 중에 있다.

전시회장은 2019년 11월 5일부터 가오픈에 들어간다. 정식 오픈일은 2020년 9월이 될 예정이다. 이번 호텔 건립으로 인한 숙박과 컨벤션 인프라 확대로 전북 MICE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마블커뮤니케이션 김재호 대표, (주)원플러스원 정규화 대표, 지에이치코리아헬스 유경숙 대표, (사)전북MICE발전협의회에 첫 인사

(사)전북MICE발전협의회에 새롭게 세 분의 MICE 전문가들이 새 식구로서 첫 인사를 건넸다. 바로 (주)마블커뮤니케이션의 김재호 대표, (주)원플러스원 정규화 대표, 지에이치코리아헬스의 유경숙 대표이다.

〈(주)마블커뮤니케이션 김재호 대표〉 김재호 대표가 운영하는 (주)마블커뮤니케이션은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전시 및 행사대행업체로서 비즈니스 목표와 부합되는 전략 수립 및 콘텐츠 기획, 국제회의, 기업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고객 접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측정 및 인사이트를 순환하는 과정인 IMC비즈니스를 수행한다. 2016년부터 매월 다국적 제약사와 IT회사의 국내외 심포지엄 및 신제품 출시 이벤트 행사 등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주)원플러스원 정규화 대표〉 정규화 대표의 (주)원플러스원은 1996년에 설립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MICE기획사로서 20년간 단일 1,000명 이상의 국내외 행사 약 200건 이상을 진행하여 고객 니즈 이상의 행사유치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주요 실적으로는 〈Singapore Prudential QCE 2016 SEOUL〉, 〈개는 30주년 Spring Festival at 용평리조트〉, 〈AIA Malaysia Star Conviention in Seoul〉, 〈아시아 유청소년 축구대회 및 컨퍼런스〉 등 이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행사유치 경험이 있다.

〈(주)지에이치코리아헬스 유경숙 대표〉 유경숙 대표가 운영하는 지에이치코리아헬스는 헬스케어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광고 대행업, 국제회의기획 기업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Faculty 그룹과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헬스케어 주체 간의 균형발전을 도움으로써 보다 나은 헬스케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AAE_Echo Asia〉,〈2018 ECHO 360, 2nd ASH Conference〉, 〈대한에이즈학회 학술대회〉, 〈성형외과학회 레이저성형연구회 심포지엄〉 등을 유치하며 헬스케어전문 국제회의기획업 및 광고대행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신입회원 세 분들을 환영하며 좋은 인연이 되길 기대한다.

컨벤션 유치 전담부서 신설, ‘전주시’ 마이스 공략 시동

지난 7월 24일 전국 각지 전문가 모아 세미나 개최도

전주시가 마이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주형 마이스산업 키우기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후 전주컨벤션센터의 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경기장 개발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지난 24일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개별 관광객과 마이스를 연결짓는 방안 등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주형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안으로 컨벤션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문화시설, 전주지역의 주요 호텔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현재 시는 마이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컨벤션 유치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등 각종 마이스 전문 행사에 참여해 홍보 마케팅을 전개한 바 있다.

24일, 마이스 전문가 모아 세미나 개최

특히 전주시는 마이스산업에서는 후발주자로 여겨지는 만큼 기존 마이스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에도 시는 기존 전주의 강점을 살린 마이스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시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세미나가 전주만의 특화 방향이 설정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개장 3개월 남은 ‘전라감영’ 활성화 위한 중장기 계획 절실

전라감영,내년3월 개장 목표 막바지 복원 공사 중 2017년부터 104억원 들인 전주시 전통문화 역점 사업 건물 복원했지만 관광객 유입할 콘텐츠 필요해 문화관광 상품화하려면 스토리 개발이 시급

전라감영 복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며 개장을 3개월 앞두고 있지만 관광객을 유입할 확실한 콘텐츠가 없어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라감영 복원은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원 공사는 104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작했다. 당초 계획은 479억 원을 투입해 전라감영 동·서편을 모두 복원하려 했지만 사원을 축소해 동편만 복원한다. 전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운영 결과에 따라 서편 개발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복원하는 건물별로 콘텐츠 적용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핵심 건물인 선화당은 와이드 프로젝션비전과 디지털 병풍을 설치한다. 내아는 교육체험, 연신당은 반응형 라이브러리와 VR체험, 관공각은 타임슬립 만리경 등을 운영한다. 또 감영 내부를 증강현실로 복원해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전문가들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기 위해서는 전라감영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 개발과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스토리 발굴이 먼저다.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는 전라감영의 상징성을 강화해야 하고, 상징성 강화를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상품화 전략을 짜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2022 아태마스터스 ‘유치’... 7년 연속 대규모 행사유치완성

전북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대회인 ‘2022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APMG)’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IOC 공인 국제대회이자 중장년층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면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와 함께 국제 행사를 통해 위상을 높이게 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스위스 로잔 소재 Olympic Museum에서 열린 국제마스터스협회 총회에서 대회 유치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적격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전라북도가 2022년 아태마스터스 개최지로 확정됐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한국관광공사 대표 관계자들이 함께 제출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계획서의 신뢰 여부를 심사하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충분한 시설 ○대한민국 체류여행 1번지로서의 전북의 매력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대한 전라북도민의 지지 ○대한민국 정부 보증과 전라북도의 개최 의지 등 4가지 기준으로 개최지 당위성을 피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총 비용 현재 가치가 64억원, 총 편익 현재 가치가 225억원으로 비용편익(B/C) 비율이 3.5로 경제성이 높은 대회로 인정을 받았다. 메이저 스포츠대회 개최로 인한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807억원, 취업·고용효과 1,049명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전망됐다.

출처 : 마이스산업신문, 전북일보



2019년 9월 월례회

- 장소 : 삼진강바른다슬기
- 일시 : 2019. 9. 20(금) 20:00~

9월 월례회는 2019 제1차 전북MICE 거버넌스 후 진행되었습니다.



- 장 소 : 흥록기파티하우스전주점 비양코흘
- 일 시 : 2019. 12. 13(금) 15:00 ~
- 주최·주관 :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 후 원 : 전라북도